

# 전남도 귀농어·귀촌인 10년 연속 4만명 돌파

### 40대 이하 2만2479명 전체 56% 정착금·지원정책·인식변화 요인

은퇴자 등 매년 4만여명이 전남으로 귀농어·귀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대 이하가 전체 50%를 웃돌며 청년층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종 정착금과 지자체의 정책 성과, 농어촌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귀농가구는 1966가구(2523명), 귀어 297가구(388명), 귀촌 2만9864가구(3만7543명)로 총 3만2127가구·4만454명이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이래 10년 연속 4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귀농어·귀촌 가구 중 40대 이하가 2만2479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했는데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농어촌에 대한 인식 변화(농어업비전·발전가능성, 기업승계 등)와 영농·어정착지원사업 등 정부·지자체의 정책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2016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인구감소에 대비해 전국 최초 인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 예비 귀농어·귀촌인



전남도 귀농어·귀촌 인구가 매년 4만명을 돌파하며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4만여 명 중 56%가 40대 이하였으며 전남에서 살아보기, 영농·어정착지원금, 농어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전남도 제공**

유치를 위해 '전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운영, 전남에서 살아보기' 등 전국 최초 시행한 결과로 보여진다.

전남도는 귀농어귀촌인 유치를 위해 수요 중심의 특색있는 귀농어·귀촌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대도시 예비 귀농어·귀촌인 유입을 위해 '전남(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지난해 27개소에서 올해 31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체험형지원센터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귀농어귀촌인의 안정 정착을 위해 창업자금(3억원 이내), 주택구입자금(7500만원 이내) 융자지원과 임시 거주 공간인 귀농인의 집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9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 귀농어귀촌자들을 위해 1팀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발굴, 지난해부터 매년 60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전국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해 예비 귀농어귀촌인 2000명에게 교육 및 상담을 실시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일권역 내 또는 연고지 등 익숙한 곳, 지자체 정책지원이 활발한 곳,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곳 등으로 귀농·귀어·귀촌하는 경향이 많다"며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준비에서 정착까지 일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백건재 기자**

### 매주 토요일 '문화난장' 운영 함평천지전통시장

매주 토요일 함평천지전통시장에 가면 가족, 친구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오는 11월까지 '토요일에(愛) 놀장&플리마켓'을 운영한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함평비빔밥 거리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악, 악기연주, 팝페라 등 문화예술 공연과 짬뽕, 비즈공예, 머그컵 만들기 등 같은 생태문화 체험, 그리고 한궁, 투호, 윷놀이 등 전통문화와 연계한 가족놀이공간 등을 운영한다. 특별행사로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경품추첨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는 오는 11월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한다. 단 함평천지전통시장 장날(끝자리 2·7일)인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매주 주간별 행사와 이벤트는 군청 누리집 또는 함평천지전통시장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 득량만·여자만에 낙지방류 보성군, 3000마리



보성군이 지난 21일 낙지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득량만·여자만 해역에 포란 암컷 낙지 3000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암컷 낙지 방류 행사는 낙지목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지역 내 종묘배양장에서 낙지를 교접시켜 포란한 암컷 낙지를 금어기 시기에 맞춰 방류했다. 2020년부터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총 1만1000마리의 포란 암컷 낙지를 방류했다.

포란 암컷 낙지는 1마리당 100~160개의 알을 산란한다. 보성군은 수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해수면에는 꼬막·감성돔·점농어·대하를, 내수면에는 뱀장어·은어·쏘가리 등을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 쌀귀리 융복합사업단 출범 강진군, 전문화 속도

강진군이 2025년까지 30억원을 투입, 특화 산업 클러스트 구축에 나섰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쌀귀리 융복합사업단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쌀귀리 융복합사업단 운영위원회는 '강진쌀귀리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서순철 부군수(사업단장)와 참여 주체,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창립총회는 사업 추진계획 보고,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강진 쌀귀리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진=김윤복 기자**

### 다목적 인양기 10개소 구축 해남군, 일손 해소 차원

해남군이 관내 어항 10개소에 15톤급 다목적 인양기 10대를 추가 설치했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다목적 인양기는 평소에는 어획물 육상 인양 등 부족한 어촌 일손을 해소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소형어선의 육상 이동 등 어업인들의 활용도가 큰 장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13억7000만원을 투입해 화산면 중정항 등 10개소에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했다. 해남군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30대를 설치한 가운데 다목적 인양기 사용에 어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어촌계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수리비를 50% 지원하고 있다.

다목적인양기 운행 중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목적인양기 배상책임보험'을 전액 군비로 지원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 한여름 밤의 버스킹 공연 화순군, 고인돌유적지서

화순 고인돌 유적지에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화순군은 23일부터 7월29일까지 고인돌 유적지 내 선사체험장에서 '한여름 밤의 버스킹'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제는 '별빛이 쏟아지는 곳, 고인돌 한여름 밤의 미니콘서트'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통기타 밴드, 전자바이올린, 트로트 타임, 퓨전국악 등 공연이 선보인다. 첫 번째 공연은 23~24일 오후 7시 대중가요와 트로트를 부르는 보컬과 대금 연주 등이 예정돼 있으며 공연팀과 지역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쌍방향 공연으로 마련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가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맹목적 반대 보다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줄 것"을 무안군에 촉구했다. **자유총연맹 전남지부 제공**

## "무안군, 광주 군공항 이전 조속한 대화 나서라"

### 자유총연맹 전남지부 촉구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가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맹목적 반대 중단을 무안군에 촉구했다.

전남지부는 "전남도도와 사회단체에서 진행한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캠페인'과 도민강연회를 통해 비로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지만 무안군은 무조건 반대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무안군은

지역 내 변화된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전남도, 군공항 이전 찬성 단체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군민에게 알릴 것도 전남도에 요구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 정선채 회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적 사업이면서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전남도와 무안군이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들어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광주 군공항 이전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무안군이 대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인 기자**

## 94% 처리... 영암군 소통폰, 민원 '해결사' 역할 톡톡

우승희 영암군수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입한 소통폰이 민원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암군은 민선 8기 1년을 앞둔 지난 5월말 기준 영암군 소통폰을 통해 접수된 불편, 고충, 제안 등이 총 547건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암군 소통폰(010-9881-8572·바로

처리)은 '군민주권행정' 시책의 하나로 개설됐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 문자 등으로 쉽게 민원을 접수하고, 3일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원 결과를 빠른 시간 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 동안 접수된 민원은 유형별로 '정주여건 민원' 분야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 정비나 상수도 정비 등 군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생활민원' 분야 156건, '문화관광' 분야 53건 등 순이다. 기타 136건으로 '복지'와 '농업', '일반행정' 등에 걸쳐 있다.

영암군은 접수된 민원 중 94%에 달하는 515건을 처리 완료했다.

**영암=이병영 기자**